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애이야기 #2

2 미애가 미래다!

김미애

국회의원 후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법은 힘없고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법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특권과 반칙, 불의에 대항하는 단 하나의 무기입니다.

17세 여공 김미애가 30대 변호사가 되기까지 비록 가난했지만
오히려 기회의 평등과 공정경쟁을 보장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기적이라 여겼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공정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누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편이면 온갖 범죄혐의도 눈감아 주는 거짓공정, 가짜정의는
희망 없는 죽은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을 대변해 온
16년차 변호사 김미애가 공정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열정과 경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진
동네 변호사 김미애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반송·반여·재송동 주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가
오히려



작년 7월에 만난 이 아이는 현재 미국에 입양되었다.



사랑이
다르다

열일곱, 여공이 되다.



가난한 어부와 해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중2 때,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져 암흑 같은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버스비도 없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여고 입학 한 달 후,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17세, 해운대구 반여동 방직공장의 여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봉제공장, 잡화점 판매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 가난했지만 희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른넷,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배우지 못한 설움이 늘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하겠다고 결심했고, 29세, 동아대 법대 야간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옆 자취방을 얻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을 지켰고, 34세,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16년차 변호사 김미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 배려와 헌신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걸어온 길이 미래를 증명합니다.

“따뜻한 정치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아이 3명을 둔 30대 가정주부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유치장에 찾아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가냘픈 그 여성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인 그 여성의 무료변호를 자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재판은 자정 무렵 끝이 났습니다. 말길 곳 없는 어린 제 딸을 법정 복도에 남겨두고 판결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습니다. 딸에게 한없이 미안했지만 무거운 마음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김미애, 같이 울고 웃겠습니다.

‘상습 폭력 남편 살해’ 해외선 폭넓게 정당방위 인정 추세

■ 이슈주적

가정폭력 피해 여성, 남편 살인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1상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분보 25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가정폭력 피해가 원인이 된 살인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A(30) 씨는 올 4월 30일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됐다. 부모도 없이 단 하나 남지 않고 살던 여동생의 결혼식을 끝으로 휴대전화로 받았던 사살감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학대에 제

가족한 성학대·폭행 불구 재판부, 심신미약만 인정

여성단체, 유사 사건 분석 21건 모두 살인죄 ‘유죄’ “검찰·법원 인식 개선 필요”

숙된 지 한 달 남짓 되던 때였다. 결혼 초기 가정에 시작된 폭행은 2012년 제 1회 자녀 상담가로서 이사를 하면서 점점 심해졌고, 남편이 A 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자조와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더욱 끔찍한 것은 두 살부터 앓고 있던 아이 세 명에 고스란히 폭행

과 위협에 노출된 것이었다. 밤 하나, 거실 하나인 집에서 남편은 수시로 A 씨를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했다. 남편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도망가거나 자살하면 나나 애들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사건 전년도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A 씨를 때리고 집을 나갔다가 만회에서 돌아왔다. 남편은 A 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머리카락을 감았다. 아이들이 깨어나 울었다.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잠들자 A 씨는 아이들을 제자리로 끌고 갔다고 남편이 고고 는 소리에 비동시문 상태로 부엌에서 울기를 가치고 가 남편을 폭행했다. A 씨는 ‘남편이 깨어나면 또다시 폭행이 계속되고 나와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았다’

■ 가정폭력 인식을 바꿔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가정폭력 상담자 가운데 남편을 살해한 여성 21명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폭행한 행위를 당하는 시점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방위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평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1983년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지고 있는 남성을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1990년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등을 돌리고 방에서 나 갈 때 아내가 뒤에서 총을 쏜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법적 판단에 앞서서 수사와 재판 관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없는 한 A 씨 재판에서 있었던 일상의 2회 가해는 한 발자국 앞을 가해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 또한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여성단체의 자제를 전하는 기자의 질문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인도 문제까지 원인이 된 폭행” “살인죄를 줄기가 있으면 살인죄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면제했다. 가정폭력을 ‘부부 문제’로 축소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을 간과하는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상륙법원소 이준희 소장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보면서 검찰의 상행 등 인식과 인권감수성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경향감을 느꼈다면서 ‘가정 폭력 피해 아내의 남편 살인에서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방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이 상행되고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원 기자 wll@busan.com

2017.10.26. 『부산일보』



“책임 정치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위법한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을 적법하게 변경하는데
술한 모함과 방해로 받으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내 돈을 써가며 밤잠을 줄여 일한 결과, 연간 1억 7천여만 원의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었기에 끝까지 했습니다.

오직 시민,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 김미애, 전문가답게 똑 부러지게 하겠습니다.

피플인 '아파트 관리 비정상' 바로잡은 동대표-김사 김미애 변호사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데 1년 걸렸습니다”



김미애 변호사가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1년간 기복한 관련 사무 중 일부를 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미애 기자 kmi@naver.com

2014.05.30. 『부산일보』

“성폭력 발생 땐 2차 피해 방지가 더 중요”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단장
김미애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피해자 감정가복 상해 치료 필요
여성단체들과 연계 법률 지원
미투 계기 더 성숙한 사회 될 것



“피해자가 사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
로 금액이 성폭행 사건을 기소했다고 해
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폭행 문제는 온
에게 어렵고, 법적으로 다룰 여지도 많
고 제도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
원생들에게는 ‘미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
야 합니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여성 및 성폭력

관련 상담센터나 단체들과 연계해 피해자
들에게 고소·고소, 수사 입회, 2차 피해 방
지의 법률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단
장은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인 방규영
진 변호사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사
역은 전담 단체 ‘민간’이 조 모 대표
사건에 피해자 4명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단

도 예방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도 예방을 목적으로 보
라는 시선도 일부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명목에 진정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법
에서 진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건 변호사들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
다. 법적으로도 전담하는 팀이 없기
만,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은 감정 기복도
심한 반면에 지식을 이해할 줄 수 있는
김 변호사도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피해
자가 부끄러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2차 피해자의 법원에
서의 싸움은 계속인데 (대응) 관공이 많
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
호사는 “인원 없이도 법원에 갈 수 있
어 위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원단을 통
해 이런 변호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미투 열기’가 열렸을 순찰차, 수사 기관
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기자 kmi@naver.com

2018.03.28. 『부산일보』



강단과 소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이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밤잠을 줄이며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행정, 교육, 법률 전문가인 김미애가 제2센텀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1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거점기지

- 스마트 청년창업 허브 구축, 복합문화공간(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조성,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설립
- 융합부품소재·바이오헬스 등 ICT 기업유치
-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춘 한국판 실리콘밸리
- 지역과 공존하는 개발
- 지역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



2

미래인재개발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창의성, 도전정신, 글로벌
마인드의 전문 교육 기관

- 4차 산업혁명시대 부합하는 글로벌인재양성센터
- 창의성 전문 교육기관 유치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유치

3

구)한진CY부지 개발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정성 담보

-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 학교, 교통, 일조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프로세스 진행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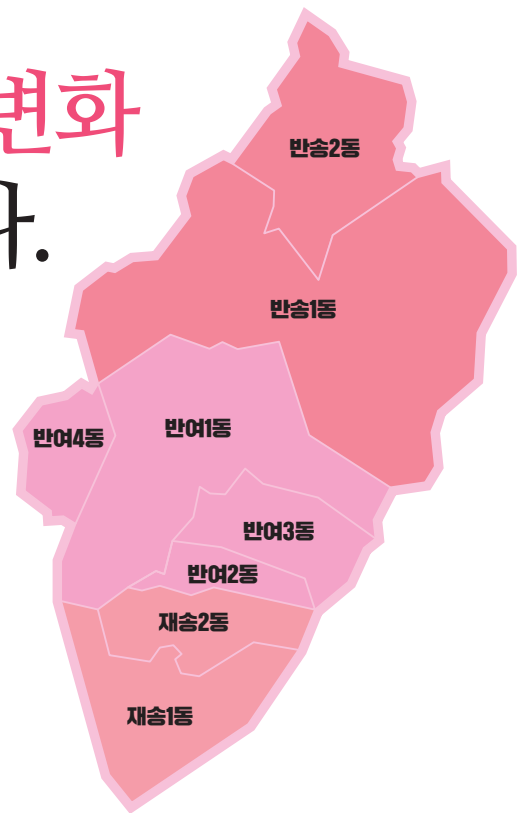
꿈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흙, 모래, 나무,
바람이 있는 놀이터

- 유아, 청소년, 어르신, 전 가족이 마음껏 거닐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흙과 함께 뒹굴 수 있는
놀이터
- 그물놀이터, 짚라인, 밸런스바이크장, 다인그네,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



해운대의 아름다운 변화 동네변호사가 갑니다.



반여 1·4동

- ◆ 제2센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완성
- ◆ 반여우회도로 완전 개통
- ◆ 해운대를 대표하는 수영강 축제 유치
- ◆ 옥봉산공원 조성(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
- ◆ 삼창공장부지 체육공원 조성

반여 2·3동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 ◆ 일신여객부지·블록단위 공영주차장 설치
- ◆ 반여2동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보
- ◆ 100세 건강 걷기 둘레길 조성
- ◆ 구)반여초등학교 주민생활 지원시설 건립

반송 1·2동

- ◆ 반송동 응급의료체계 구축
- ◆ 해운대터널(반송동~우동) 건설
- ◆ 공영주차장 확대
- ◆ 해운대수목원 완전 개장
- ◆ 석대역~원동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재송 1·2동

- ◆ 구)한진 CY 부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 ◆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 ◆ 별천지공원 정비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
- ◆ 전신주 공동선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 ◆ 장산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공 통

- ◆ 지역 내 하수관거 사업 조기 착공
- ◆ 어르신 미세먼지 쉼터 조성
-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길 조성
- ◆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 ◆ 청소년 대상 프리미엄 금융교육 실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공정

- 위험적 공수처 폐지, 검찰독립을 위한 검찰총장 임기 6년 보장
- 희망사다리가 되는 대입정시 확대

경제

- 혈세 낭비 막고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지침 마련
-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 패자부활 가능한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 신설

안전

-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데이트 폭력,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보육

- 감염병,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초등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
- 부모 요청 시, 전문보육교사 파견 및 주야간 긴급 돌봄센터 시스템 구축

든든한 백도,
화려한 스펙도 없지만,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경험, 열정, 전문성 그리고 추진력으로
오늘과 내일을 밝히겠습니다.

지역을 살피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4월 10~1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김미애에게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이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김 미 애 드림

김미애가 걸어온 길

- 경북포항 출생
- 포항여고 중퇴 (85.03.~08.)
- 부산 해운대 반여동 방직공장 (85년)
- 고졸 검정고시
- 동아대학교 법학부 졸업
-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4기)
-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 해운대구청 공직자윤리위원장
- 전국입양가족연대·고아권익연대 고문변호사
-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부산시·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권위원장
- (전) 해운대구청 고문변호사
- (전) 부산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장
- (전) 부산일보 독자위원



블로그



페이스북



뱅크

2 미애가 미래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21, 경성빌딩 4층
전화 051-522-2030